

책가방 선물에 아이 얼굴엔 웃음꽃 활짝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6일 KB국민카드와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에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 축하해' 포장식과 전달식을 열었다. 책가방에는 권장도서 1권과 학용품 세트, 입학 축하 희망메시지 카드와 새해 달력 등이 담겼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선물한 책가방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6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하나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며, 이는 모든 인간은 성별, 나이, 사

상, 종교, 빈부, 취향과 같은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대자유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올해 봉축표어는 다양한 국내의 환경 변화를 앞두고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오는 4월29일 오후7시부터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을 벌인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신계사 복원 10주년...방북 추진

10월 남북불교도 합동 법회

보수불사 등 기념사업 전개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열어볼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년 복원된 신계사는 불교를 공통분모로 남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남북불이(南北不二)’를 확인했던 통일도량이자 경색된 남북정세 속에서도 불교교류를 통해 만남을 이어왔던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올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법타스님)가 신계사 복원 10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추본은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만해스님 70주기 합동다례제, 북녘어린이 영양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도담도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꾸준히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남북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추본은 불교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신계사 복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민추본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10월 중 신계사 10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신계사 건축물 진단조사 및 보수불사 △신계사 복원 10주년 기념토론회 및 신계사 기록물 전시회 △부처님오신날 및 광복절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3월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민추본 총재)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남북관계 역시 어려운 시절을 접하고 있다”며 “사회가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매주 목요일은 채식하고 나눔 실천하는 날

‘채식day 기부day’, 23일 선포

종단이 채식 문화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생명살림 캠페인 ‘채식day 기부day’를 펼친다. 조계종 포교원과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채식을 통한 생명존중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살림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자가 지켜야 할 오계 중 불살생(不殺生)의 가르침을 채식과 나눔을 통해 실천해 가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전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동물들은 땅에 묻히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전국에서 닭과 오리

등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3300만 마리에 달한다. 최근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역시 1425마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기적인 삶, 생명살림의 삶, 나눔의 삶’을 모토로 진행되는 생명살림 캠페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연기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불교적 실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캠페인은 현대사회의 육식 위주 음식문화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불교계에, 나아가 우리 사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다 채식과 기부를 연계해 동기를 부여한 점도 생명살림 캠페인의 특징이다. 캠페인은 매주 목요일 하루 채식을 실천하고 이를 다짐하는 의미로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조계종 홈페이지 총무행정 코너 내 ‘채식day’에서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성역화불사 추진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채식을 실천하고, 10·27법난 기념관 건립 기금 기부나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동행 기부 가운데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된다.

포교원과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알린다.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불교신문도 주관 단체로 캠페인에 동참해 생명살림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불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

문화기획 佛SHOW 9편



현진스님의
산방한담

잘했다,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올해의 신행주제로 ‘3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감사하라, 감동하라, 감탄하라는 표어로 ‘3감’운동을 추진했는데 나름의 반응이 있었다. 이번의 ‘3다’운동은 일종의 청진리레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이 죽을 때는 ‘욕’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결결’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더 잘해줄 걸, 더 좋은 일 할 걸, 더 사랑할 걸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후회한다는 데서 생긴 표현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결결결’보다는 ‘다다다’하고 최후의 말을 전하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지들에게 고맙

다, 수고했다, 잘했다는 유언을 보내면 원망도 미련도 없는 아름다운 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인생의 종착지에서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훨씬 효과적 것이라는 착안에서 신행운동으로 끌어온 사연이 여기 있다.

기본적으로 고마운 게 참 많다. 동트는 아침의 기운과 맑은 공기는 누가 제공하는 것인가. 파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값 치르고 구입한 적이 있는가. 흐르는 샘물과 구름 속의 달빛은 어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니까 고맙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나 혼자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연과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고맙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수고했다 말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인정이며 노력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수고는 수고(受苦)라고 쓰고 싶다. 그러므로 다소 불편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 수용하여 즐기라는 불교적 지혜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것은 불편한 것을 잘 이겨냈다는 찬사

다. 잘했다는 것은 칭찬이며 용기를 주는 말이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연사시(言辭施)에 해당된다. 그래도 참추게 한다는 칭찬의 주문이 〈천수경〉 첫 구절에 실려 있어서 흥미롭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정찬의 축원으로 바꾸면 이렇다. “잘했다!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모든 일이 잘 될까!”

청주 마야사 주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 25401계좌)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발원의 새 발걸음

(주)조계종출판사가 중단 사업지주회사로 거듭나 신사옥으로 이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17년 1월 25일 총무원 총무회의 의결로 조계종사업지주회사 설치에 대한 종령을 제정하고 (주)조계종출판사를 중단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월 중 새로운 회사명칭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사는 중단에서 부여한 사명을 올곧게 수행해 나가고자 그간 출판사의 각종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교구와 사찰을 비롯하여 중단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중단 내외 관계자 분들과 고객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중단 중앙총무기관·본말사 및 유관기관·원로대덕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정유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발걸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중단내외 사부대중과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근본이었기에 모든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무소 이전 일시 장소 : 2561(2017)년 2월 16일(목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230호~232호)

※ 2017년 3월 중 봉행 예정인 신사옥 개소식 및 제2차업 선포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